

오프사이트 (Tailing Dam)

- 플랜트 사이트에서 처리한 광석(尾鑛:Tailing)을 퇴적시키는 댐설비

(Tailing Dam)



오프사이트 (Resettlement Village)

- Tailing사이트, 플랜트 사이트 지역 개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1,200명에 대하여 재정착 (Resettlement) 프로그램을 실시
- 거주제공과 생활지원(교육·농업지도·직업훈련 등의 제공)

(Resettlement Village)



마다가스카르공화국 ~ Republic of Madagascar ~

- 독립일: 1960년 6월 26일
- 인구: 2,070만명
- GDP: 87억불 (국민 1인당 421불)
- 면적: 58만 7천평방킬로 (일본의 1.6배)
- 언어:
 - ✓ 마다가스카르어
 - ✓ 프랑스어
 - ✓ 영어
- 주요산업:
 - ✓ 농목업 (미곡, 커피, 바닐라, 사탕 등)
 - ✓ 어업 (새우, 참치)



마다가스카르국에 있어서의 본 프로젝트 의의

- 과거 최대의 직접외국투자
- 경제효과
 - ① 수출수입의 증가: +US\$1.5bil /년
 - ② 정부세수·로열티의 증가: + US\$2.9Bil (프로젝트 라이프 합계)
- 고용창출 효과
 - ① 건설기간 중 : 누계 22,000명 초과 (이 중 85% 마다가스카르인)
 - ② 조업기간 중 : 6,000명(직접고용 2,500명, 간접고용 3,500명)(상동)
- 기술이전
 - 직업훈련수강자 : 약 2,800명
 - 고도직업훈련생 : 약 220명 (3년간)
- 기타
 - 국제레벨의 교육시스템 구축,
 - 농촌개발과 빈곤완화, 인프라망 구축

마다가스카르국가예산
: US\$1.3Bil (2008년)

(직업훈련)



마다가스카르정부·일본정부와의 관계

■ 마다가스카르정부로부터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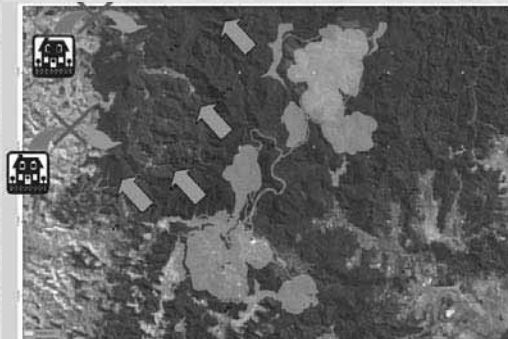
- 환경 인허가 취득(2006년 12월)
- 대규모 광산투자법(LGIM)인정(2007년 3월)
- 장기에 걸친 법제도·세제면의 안정화 보증
- <계쟁(係爭) 중재, 국외계좌 개설허가, 세금감면 등 포함>

■ 일본정부로부터의 지원

- ODA, 자원외교, 아프리카지원 등이 중심이 될 수 있음
- 국제협력은행(JBIC), 일본무역보험(NEXI) 등

환경에 대한 배려 — Environmental Action Plan

- 각종의 가이드라인 준수(세계은행, IFC, 적도기준)
- 독특한 액션플랜 “No Net Loss and Net Gain”
 - 광구의 재생과 완충지대의 설정
 - 환경을 배려한 파이프라인 루트 설정
 - BBOP(Business and Biodiversity Offset Program)에 대한 참가와 오프사이트에서의 보호구역 확보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공헌

■ 약 200회에 걸친 지역주민과의 협의

- 공청회, 프로젝트정보 공개 등

■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 사회인프라 개선 (항만설비, 수송인프라 등)
- 농업지원 (기술지도)
- 교육수준 향상 서포트
- 기술트레이닝 (트레이닝센터 설치, 신규졸업자/기졸업자)
- 지역진흥·고용창출(중앙구매센터, 폐목재 재이용, 유니폼 제조)
- 현지 구직자 우선 고용

(중앙구매센터)



(유니폼 제조)



한국기업과의 제휴 ~배경·경위~

- 2005년8월 - 스미토모상사 참가(Dynatec:37.5%, SC:25%,타 파트너:37.5%)
- 2005년11월 - 타 파트너가 철수하여 Dynatec:75%、SC:25%으로
- 2006년 - 중국기업과 한국KORES가 신규참가를 검토

KORES는 자원비즈니스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미토모상사와 많은 점에서 가치관 공유가 가능



스미토모상사, KORES 참가에 찬성

- 2006년10월 - 한국KORES 와 캐나다SNC-Lavalin가 참여
(Dynatec:40%, SC:27.5%, KORES:27.5%, SNC Lavalin:5%)

한국기업과의 협업메리트

- 「자원이 없는 국가」&「수요국」이라는 공통 백그라운드
- 사고방식 유사(파트너 존중, 재산/코스트 의식, 환경/사회・**Compliance**에 대한 배려)
- **Country risk**에 대한 견해 일치



- 일본기업과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

(예) 암바토비 프로젝트

- ・ 한국의 관
 - ・ 일본의 민
- 상호 존중 / 安心感



- 프로젝트에 대한 발언력 강화 (한일간에 one voice)
- 한일 양 정부를 포함한 대응도 가능 (민관연대)

한국기업의 특징 (자원안건에 있어서)

(강점)

- 민관연대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 신속한 의사결정
- 안건 평가력
- 국제경쟁력 있는 **Contractor** 존재
- 파이낸스 조성력(정부계금융)

(약점)

- 민간기업의 경험부족(광산사업 경영)
= 권익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
- 정보관리, **Compliance** 의 의식 침투

스미토모상사의 한일협업 사례

(파트너)

한국전력공사
(KEPCO)



UAE(아브다비)
화력발전소 IPP사업

한국통신
(KT)



우즈베키스탄
브로드밴드사업·종합통신사업

Omnitel



몽골/알제리
휴대전화 컨텐츠사업

한일협업 앞으로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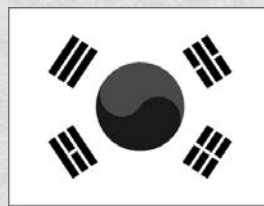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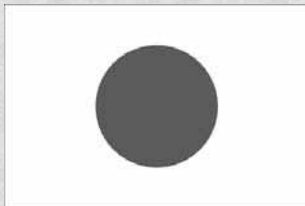
협업실적의 축적



관계가 한층 더 강화



신규안건 조성



(참고) 타사의 한일자원개발·인프라 주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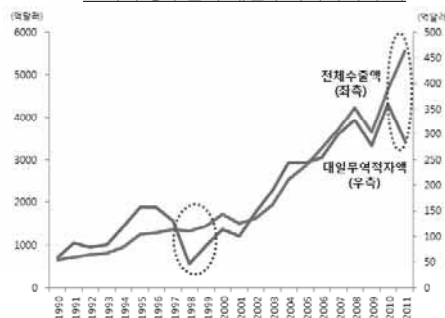
발표 시기	안전개요	일본기업	한국기업	기타
08/03	멕시코 LNG터미널 운영사업	미쓰이물산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
08/10	브라질 철광석 권역 공동보유안전	이토추상사 일본계철강 5사	POSCO	—
09/05	인도(벵갈) 지하철용 차량공급안전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상사	현대로템	BEML(인도)
10/10	모잠비크 원료탄 개발 프로젝트	신일본제철 닛테츠상사	POSCO	Talbot Group(호주)
11/01	인도네시아 LNG 공동생산 프로젝트	미쓰비시상사	한국가스공사	폴타미나(인도네시아) 메도코(인도네시아)
11/03	브라질 레어메탈 광산회사, 공동출자	신일철·JFE 소지츠·JOGMEC	POSCO 한국국민연금기금	—
11/05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설치안전	미쓰이물산	대우건설	—
11/05	터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설치안전	이토추상사	SKE&C	—
12/02	물인프라비즈니스 합작회사 설립	히다치플랜트테크 놀러지	LG전자	—
12/03	호주 철광산개발 프로젝트	마루베니	POSCO STX그룹	HPPL사(호주)



1. 최근 『확대균형』 조짐을 보이는 한일 경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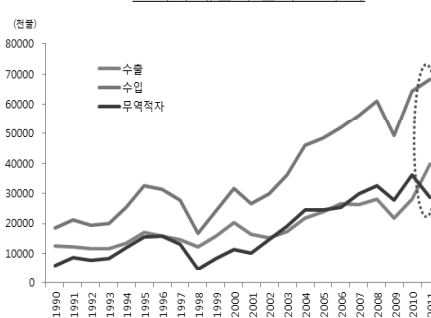
- 2011년, 한국의 총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현상 발생
 - 2011년 대일수출은 397억 달러로 전년대비 40.9% 증가하였으나, 대일수입은 683억 달러로 6.2% 증가에 그침
 - 대일무역적자가 2010년 361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286억 달러로 75억달러, 20.7% 감소
-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리먼 쇼크 이후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가 한일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한국의 총수출과 대일무역적자의 추이



자료 : KOTRA

한국의 대일 수출/수입 추이



2.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도 적극적

➢ 2011년, 일본기업의 對 한국 직접투자도 124.8%나 증가

-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기업의 매력적인 투자先이 아니었으나,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다음으로 직접투자 증가율이 높음 ※ 태국은 2011년 말, 복귀투자가 급증했을 가능성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지역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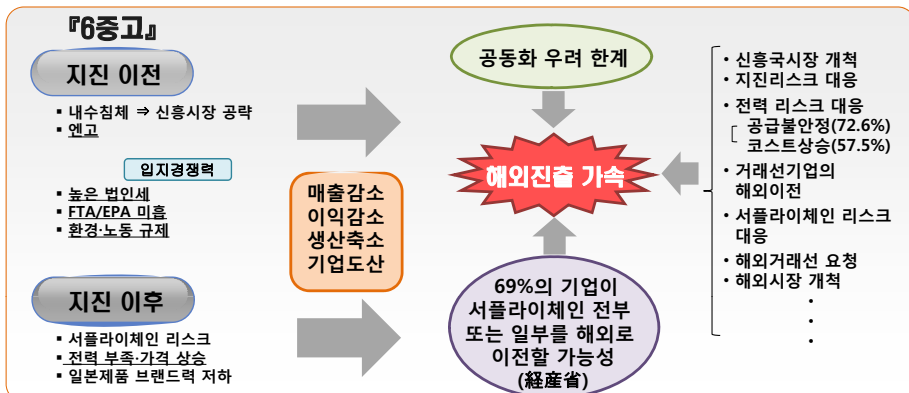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억불)	증가율(%)
중국	65.8	61.7	62.2	65.0	69.0	72.5	127.8	76.3
홍콩	17.8	15.1	11.3	13.0	16.1	20.9	13.6	△34.6
대만	8.3	4.9	13.7	10.8	3.4	-1.1	8.6	n.A
한국	17.4	15.2	13.0	23.7	10.8	10.9	24.4	124.8
싱가포르	5.6	3.8	22.3	10.9	28.8	38.5	44.9	16.8
태국	21.3	19.8	26.1	20.2	16.3	22.5	71.3	217.4
인도네시아	11.9	7.4	10.3	7.3	4.8	4.9	36.1	636.1
말레이시아	5.2	29.4	3.3	5.9	6.2	10.6	14.3	35.9
필리핀	4.4	3.7	10.5	7.1	8.1	5.1	10.2	98.5
베트남	1.5	4.7	4.8	11.0	5.6	7.5	18.6	148.4
인도	2.7	5.1	15.1	55.5	36.6	28.6	21.1	△26.2
합계	161.9	171.7	193.9	233.5	206.4	221.3	392.6	77.4

자료 : JETRO

KICF (한국투자진흥기금)

3. 『6重苦』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

- 일본기업들은 리먼 쇼크 이후 내수부진 ⇒ 신흥시장 공략, 엔고, 입지경쟁력 열화로 해외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東일본대지진, 태국홍수 등으로 서플라이 체인 훼손, 전력문제 등이 가세하여 최근 해외진출이 가속
- 공동화 우려로 해외진출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으나, 일본기업들은 한계에 도달
 - 국내에서 사업 축소하는 것보다, 해외 수익으로 고용확대,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일본기업의 69%가 서플라이체인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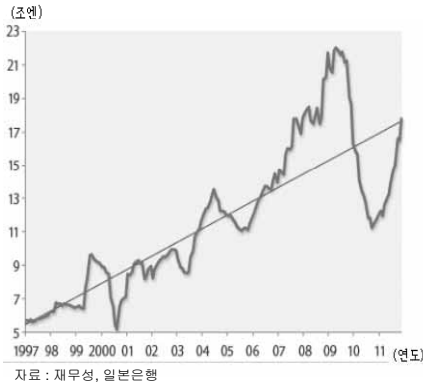


KICF (한국투자진흥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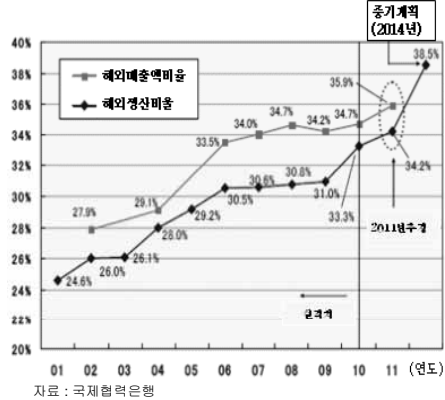
4. 해외직접투자, 해외생산비율 급증

- 리먼 쇼크 이후 주춤했던 일본기업 해외진출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
 - 2008년 과거최고치인 1,308억 달러, 2010년 572억 달러, 2011년 1,156억 달러로 85%나 증가
- 일본제조기업들은 해외생산비율을 향후에도 증가시킬 전망
 - 해외생산비율은 2011년 34.2%에서 2014년에는 38.5%로 증가시킬 전망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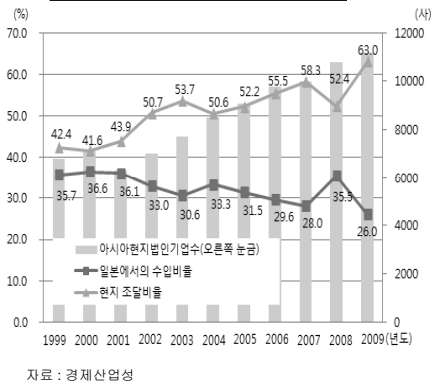
일본제조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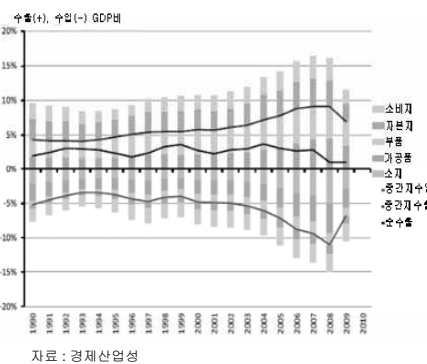
5. 아시아 진출, 현지조달 증가 ⇒ 소재·부품 수출 감소

- 아시아 진출 증가, 현지조달 증가, [일본으로부터] 수입 감소
 - 10여년간(1999 → 2009) 현지조달비율 이 42.4% → 63.0%로 증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 35.7% → 26.0%로 감소
 - 현지조달은 진출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현지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 일본의 강점분야인 가공품(소재)· 부품· 자본재(장치) 수출이 감소

아시아진출 일본기업의 조달선 변화 추이



일본의 제품별 수출입 추이



6.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 地産地消, 지식·기술산업 이전, 중국 리스크 확대 등이 주요 배경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변화의 배경

	리먼 쇼크 이전	리먼 쇼크,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출전략	· 현지시장 공략, 수출 가공거점 마련을 위해 진출 · 핵심 부품·소재는 주로 수출 · 조립 공정은 현지화	· '볼륨 존' 전략에서 '地産地消' 전략(현지생산, 현지판매)으로 진화 · 생산기지도 이전(입지여건 악화) · 내수용 산업도 적극 진출(내수부진)
진출업종	· 자동차·전기·전자 및 관련 중간재	· 기존 진출업종에 소재산업인 화학, 내수산업도 진출하기 시작
진출지역	· 시장과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중국, 인도 ·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	· 시장 성장성을 증시하는 진출 · 중국, 태국 중심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 · 소득상승,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진출 확대 · 입지여건이 양호한 한국, 대만 진출도 가시화
진출형태	· 주로 단독 진출	· M&A, 합작, 단독 등 다양한 투자 형태
주요기능	· 주로 생산거점	· 부품·소재 등 핵심분야도 일부 이전 · 현지제품 개발을 위한 R&D 기능도 이전 · 최신제품도 현지에서 생산 · 마케팅 기능 강화 및 본사도 이전
기업규모	· 최종조립의 대기업 · 동반 중견·중소 기업 중심	· 중견·중소기업 진출이 적극적

자료 : 저자 작성

KICP 한국무역진흥공사

7.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1)

①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M&A 증가

- 2011년도 상반기(4-9월) M&A 건수는 241건으로 반기 베이스로는 과거 최대
- 내수산업도 본격진출, 중국을 생산거점에서 판매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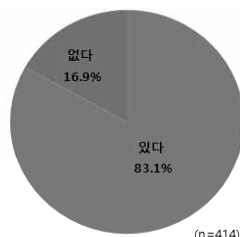
② 소재·부품 등 주력제품의 해외진출도 활발

- 신흥국 수요확대, 엔고 대책,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분산, 전력부족 장기화 등이 배경
-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클러스터를 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

③ R&D 거점의 아시아 진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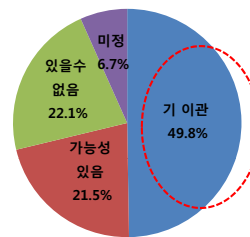
- 高코스트 다운그레이드 → 低코스트 업그레이드, 우수인재 확보 등

일본기업의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현황



(n=414)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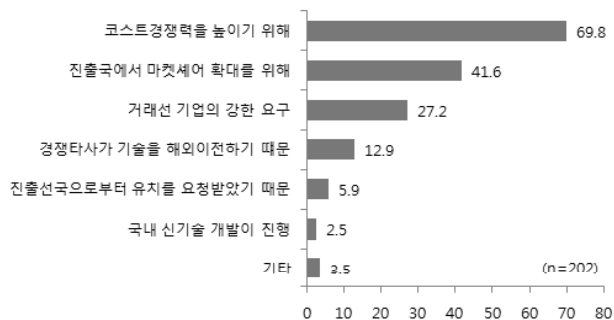
(n=689)

KICP 한국무역진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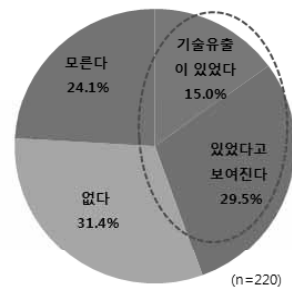
8. 핵심 기능도 이전하는 배경

- 코스트 경쟁력 강화(69.8%), 시장점유율 확대(41.6%), 거래선 요구(27.2%) 등
-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을 우려
 - 이미 기술유출이 있었다가 15.0%, 있다고 보여진다가 29.5%

일본기업이 핵심기능을 이전하는 이유



해외진출시 기술유출 유무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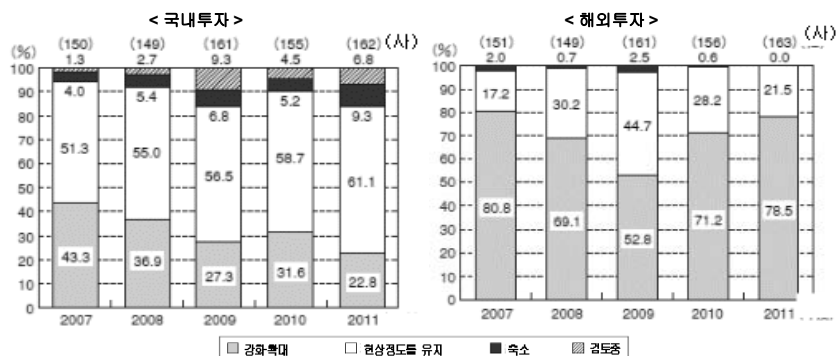
KICP (주)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9.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

④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적극적 :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 일본내 소기업 집적지가 공동으로 해외진출(일본 지자체, 정부도 지원)
- 교토시, 군마현, 하마마쓰시, 도쿄 오타구, 가쓰시카구 등(일본경제신문 10.31지)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자금, 노하우, 서비스 등에 한계
- 일본 종합상사, 해외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공단조성, 서비스 등을 지원

일본 중견·중소기업의 향후 해외/국내 사업 전망



자료 : 國際協力銀行, 2011

KICP (주)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10. 한일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 최근 일본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에 첨단제품의 생산기지, 대기업과의 협력, 한국수요를 겨냥한 진출,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연구개발 거점, 기업간 제휴, 전력불안 해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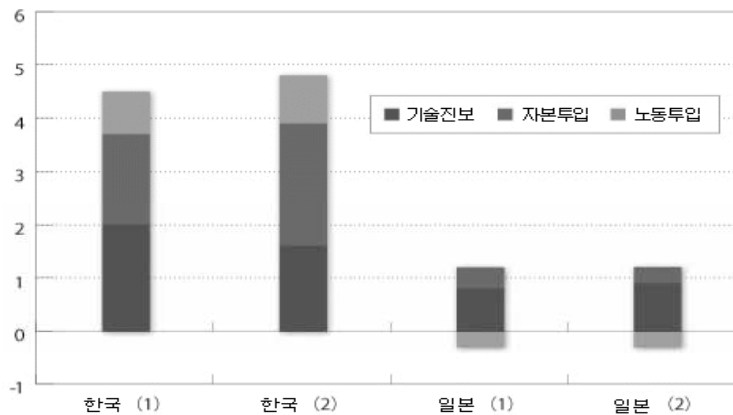
분류	기업명	내용	배경
첨단제품 생산기지	도레이	탄소섬유(양산제품)공장 신설	· 전력요금, FTA 등
	旭化成	ABS 수지용 아크릴 중산	· 세계최대 생산거점으로 활용
첨단소재 생산 (한국 대기업과 협력)	宇部興産	삼성과 수지재료 생산	· 고품질가능 패널의 한국수요 예상
	住友化學	삼성과 터치패널 공장 건설	· 한국 수요 대응
집중 리스크 대응	日立金屬	마오카(도치기)공장의 자동차 부품 생산 일부를 한국-미국에 이전	· 전력 제한 등에 대응
	일본 바르카공업	반도체제조장치의 고기능부재 생산	· 거래선 한국기업의 진출 요청 · 일본내 집중리스크 분산
연구개발 거점	알박	액정패널 제조 분야	· 해외 첫 연구개발 거점
	도쿄일렉트론	반도체 제조 장치	· 기술자의 30-40% 상주
기업간 제휴	JX닛코닛세키	SK이노베이션과 석유화학제품, 윤활유 합병공장 건설	· 전략적 제휴
전력불안 해소	소프트뱅크	데이터 센터의 한국 이전	· 전력문제 등에 대한 리스크 분산

KICF (한국투자진흥기금협력재단)

11.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1) 시장 성장성

- 일본의 잠재성장력은 1% 수준인데 한국은 4% 정도
· 일본은 노동투입 감소, 기계 저축을 감소로 인한 자본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력 저하의 원인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과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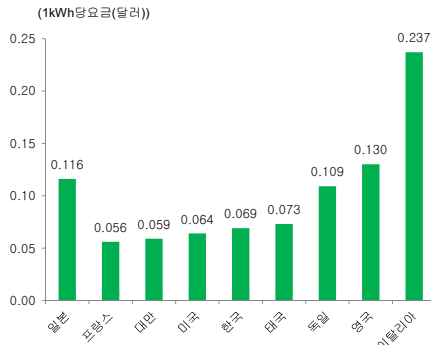
자료 : KDI, 한국은행, 내각부

KICF (한국투자진흥기금협력재단)

12.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2) 전기요금, 법인세

- 일본의 전기요금(산업용)은 한국의 2배 정도
 - 향후에도 원발 문제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
- 법인실효세율은 한국이 24.2%, 일본은 40.69%
 - 일본은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산업용, 2007년)



자료 : 미국에너지청정보국

법인실효세율의 국제비교



자료 : 재무성, 주: 한국은 서울 기준

KICF (한국국제금융연구원)

13.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3) 환율,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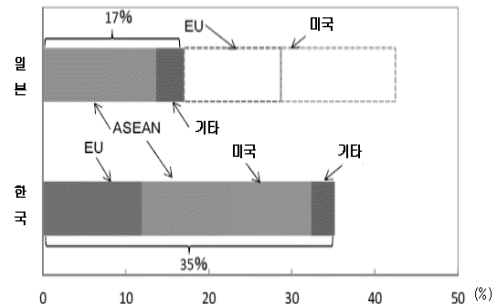
- 한국이 의도적으로 원저를 유도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엔고시 적극 개입 주장
 - 원저는 국제금융불안, IMF 경제위기시의 한국의 금융제도 때문이라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
- 한국보다 미흡한 FTA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TPP, 일EU FAT,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
 - FTA/EPA 체결 · 서명국이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35%, 일본은 17%로 절반 정도
 - 일본은 2020년까지 FTAAP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

최근 엔/원 환율 변화 추이



자료 : 재무성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FTA체결국 비중



자료 : 내각부

KICF (한국국제금융연구원)

14.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4) 물류

- ▶ 한국의 물류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 : 동해안지역 일본기업이 부산을 선호
- 특히 동해 지역 입지 기업에게 상당히 유리

세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량 변화(1980 ⇒ 2010년)

순위	항만명	취급량 (만TEU)	순위	항만명	취급량 (만TEU)
1	뉴욕/뉴저지	195	1	상해	2,907
2	노텔담	190	2	싱가포르	2,843
3	홍콩	146	3	홍콩	2,353
4	고베	146	4	심천	2,251
5	高雄	98	5	부산	1,416
6	싱가포르	92	6	영파	1,314
7	산황	85	7	광주	1,255
8	롱비치	82	8	청도	1,201
9	함부르크	78	9	두바이	1,160
10	오슬렌드	78	10	노델담	1,115
13	요코하마	72	27	도쿄	420
16	부산	63	36	요코하마	328
18	도쿄	63	46	고베	225
39	오사카	25	51	나고야	211
46	나고야	21	56	오사카	184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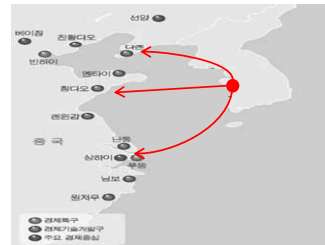
KICP (한국투자진흥공사)

15. 공단 경쟁력도 우수

- ▶ 최근에는 서울에 인접하고 중국과도 가까운 서해안 지역 공단이 주목
- 한중일을 시야에 둔 비즈니스 전개가 용이

〈서산 테크노밸리 사례〉

- 서울에서 90km, 중국과 제일 가까운 대산향 인접
- 고급인력 확보 용이(대덕연구단지 인접)
- 자동차(부품)/철강/ 화학 산업이 이미 집적
- 미쓰비시 레이온도 최근 이 지역 진출



구분	지원내역	대상조건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 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 관세(3년내 수입신고 완료대상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3천만 US 달러 이상 투자기업 - 관광업: 2천만 US 달러 이상 투자기업 - 물류업: 1천만 US 달러 이상 투자기업 - R & D: 2백만 US 달러 이상 투자기업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보조금 (최대 3억원) · 고용보조금 (최대 3억원) · 2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20명 초과인원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10~100만원 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외국인 신규 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 신청가능

KICP (한국투자진흥공사)

16. 일본기업이 한국을 진출선으로 주목하는 배경

- 한국진출은 서플라인체인 재구조화의 관건인 리스크와 코스트의 밸런스 유지 가능
- 노동집약형 산업보다는 기술집약형 산업이 진출하기 좋은 여건
- 한국 글로벌 대기업의 약진, 한국기업의 제조능력을 활용 가능

- 1) 가까운 거리 : Just in time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리
- 2) 물류거점의 발달 : 부산, 서해안 등
- 3) 산업집적, 기술집적, 질 높은 노동자
 - 기술집약형산업의 경우 전체 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4) 생산코스트 절감 : 초기 투자비용 저렴, 값싼 전기료와 인건비, 낮은 법인세 등
- 5) 판로확보 :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 용이(신제품개발, 글로벌시장진출, 생산능력 등)
- 6) 한국기업의 기술력 : 모노쓰쿠리 기술 활용 가능
 - 일본제품 경쟁력의 원천인 特注品 (커스터마이즈 제품) 생산에도 좋은 여건
- 7) 자연재해 최소 지역 : 지극히 낮은 지진발생, 홍수 확률
 - 태국 홍수로 인한 일본기업의 피해 막대

17.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는 상당히 적은 편

- 한국진출 일본기업은 아시아 타지역 진출보다 경영애로 사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9개국 중 한국은 코스트 삭감의 어려움(3위)을 제외하면 애로사항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편
 - 임금상승, 경쟁대두 등이 주요 애로요인이나 다른 입지경쟁력은 양호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경영애로 항목	한국에서 애로를 느끼는 기업의 비중	조사지역과 비교 순위 (19국가·지역 중)
1. 종업원의 임금상승	60.2%	11위
2. 조달 코스트 상승	50.0%	14위
3. 경쟁상대의 대두	48.9%	10위
4. 현지 인재의 능력·의식	34.9%	14위
5. 종업원의 질	27.3%	17위
6. 한계에 달한 코스트 삭감	55.6%	3위
7. 원재료·부품 현지조달의 어려움	19.4%	17위
8. 간부 후보 인재의 채용난	22.1%	18위
9. 거래선의 가격인하 요청	30.7%	12위
10. 품질관리의 어려움	19.4%	16위

자료 : JETRO, 순위가 19위에 가까울수록 경영애로 사항이 적다는 것을 의미

20. 한일 간 협력방향

➤ 협력 방향 : 최근 일본의 변화를 한일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

- ① 한국은 부품·소재·장치의 대일 의존 해소, 일본시장 진출, 북한 리스크에 대비한 서플라이 체인 구축 기회
- ② 일본은 내수침체 극복, 지진 리스크 대비, 글로벌 생산기지로 한국을 적극 활용하고, 한일 무역불균형도 해소
⇒ '확대균형'의 한일 경제관계 ⇒ 한일FTA의 진전

일본 정부

- ① M&A,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한국에도 적극 적용
- ② 지역 중소기업 집단 진출지로 한국을 적극 앞선
- ③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 ④ 일본기업 해외진출시의 기술유출에 대한 지도 충실과 기술유출에 대한 과도한 우려 자제

한국 정부

- ① 한국진출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등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 ② 지적소유권 보호, 특히 對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
- ③ 일본기업 유치전략 재검토 : 인센티브 부여형 ⇒ 사업비전 제시형
- ④ 한국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제 구축
- ⑤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정보제공을 충실

21. 구체적 협력 과제 : ① 일본 중소기업의 한국진출 지원 강화

일본중소기업 한국진출 예로요인

- 한국 : 자금력, 정보력이 부족한 일본 중소기업 한국진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미정비
- 일본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비해 한국진출에 대한 일본정부, 지자체, 기업의 자금, 정보 제공에 소극적 대처

한국측 과제

- 일본중소기업 한국진출 지원시스템 강화
 - 특별 여신·보충 채널(펀드 등) 마련
 - 정부·금융기관·단체·기업이 연계하여 지원
 -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수도권 지역 전용공단 조성
 - 한국기업과의 협력 정보 제공 강화

일본측 과제

- 한국진출 기업에 대한 일본정부 지원 강화
 - 국제협력은행(JBIC)의 중견·중소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시 한국은 제외
⇒ 한국도 지원대상국에 포함할 필요
 - 지자체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비해 한국진출 지원에 소극적 대처
 - 일본종합상사들도 한국진출 비즈니스에 적극 대처할 필요

22. 구체적 협력 과제 : ②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활성화

한국기업 일본진출이 소극적인 배경

- 현황 : 2011년 일본기업의 한국진출비중은 2.1%이나 한국기업 일본진출은 0.9%에 불과
- 한국 : 일본시장은 공략하기 어렵고, 코스트가 비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일본 : 대만·중국기업의 일본진출에 비해, 한국기업 일본진출에 과민반응

한국측 과제

- 일본시장 진출, 기술습득의 계기로 활용
 - 일본진출은 소재·부품·장치 기술 습득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안정에도 기여
 - ‘북한 리스크’도 인식할 필요
 - 중국기업들처럼 지금이 일본시장진출의 호기라는 인식이 필요
 - 일본기업 M&A 정보 수집 노력

일본측 과제

- 한국기업에 대한 과다한 경계심 해소
 - 한국기업 일본진출이 산업공동화 방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 일본측도 일본진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에 적극 홍보할 필요
 - JETRO 등에서 한국기업 유치활동 전개

23. 구체적 협력 과제 : ③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기술유출우려가 양국간 협력을 저해

- 한국 : 일부 중소기업에는 지적소유권 보호 의식이 미흡한 경우도 발생
- 일본 : 일본기업은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한국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 기술유출에 대한 양국간의 잘못된 선입관을 배제하고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

한국측 과제

- 일본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정비·홍보
 - 일본기업은 한국진출 시에 핵심기술 유출을 가장 우려함을 인식할 필요
 - ‘지식재산기본법’에서 보호·집행 기능강화
 - 단속강화, 소송·절차 간소화 등에 노력
 - 일본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일본측 과제

- 기술유출 대비책과 기술이전 채널 마련
 - 일본기업은 경산성이 마련한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참고로 철저한 대비책 마련
 - 중소기업은 일본정부가 지원 강화
 - 한국은 중국 등지보다 지적소유권 보호가 잘 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
 - 불필요 기술은 정당한 기술이전 채널 마련



감사합니다

제3국 공동진출과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방안

-자원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2012/5/17, 大阪)

신장철(승실대)

-목 차-

- I 세계 자원시장 현황 및 최근 동향
- II 글로벌 자원시장에서의 한일간 제휴 및 협력
- III 한일양국의 연계지원체제의 구축(案)
- IV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위한 정부역할

I 세계 자원시장 현황 및 최근 동향



1. 자원의 유한성과 수급불균형

- 세계의 광물 및 에너지의 유한성
 - 석유: 50년, 천연가스와 동광: 70여 년에 고갈이 예상됨 (100년이상 지탱되는 광물자원은 철광석과 석탄 정도임)
- 자원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수준 유지
 - 석유 및 천연가스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 희토류의 경우 2009년부터 가격이 급상승되고 있음 (<그림 1>참조).
- 세계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
 - 자원의 고갈가능성과 함께 수급상의 불균형에 의해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

2. 중국의 급성장과 자원시장의 불안정



- 중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개발수요는 세계 자원시장을 동요시키고 있음(세계자원의 블랙홀).
 - 중국의 수입 대국화에 의해 중국의 산업동향은 세계자원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 중국의 북한, 아프리카 국가의 자원에 대한 개발권 확대
- 특히, 최근에 자국 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은 희토류 및 희귀 광물 등의 가격을 폭등시켜 자원안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음.
 - 희토류는 자원비타민으로 첨단 부품 소재의 원료로 활용
 - 세계 자원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희토류의 95%이상을 중국이 생산 (세계 희토류의 50%이상 보유 <그림 2>참조).

II 글로벌 자원시장에서의 한일간 제휴 및 협력



1. 한일 공동진출의 현주소

- 양국기업의 제3국 자원시장 공동진출은 초기단계에 불과
 - 최근에 관련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협력사례는 일본측 종합상사가 주도하고 한국기업이 협력하는 경우임
 - 한국기업은 제3국에서의 인지도와 함께 수주 경쟁력 강화
 -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와 제반 기술력이 크게 향상
 - 신속한 경영판단과 사업 추진상의 적극성 등에 장점이 있음
 - 일본기업은 엔화 강세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의 메리트와 함께, 정보력과 자금력, 금융 조달능력 등에 강점이 있음
- ☞ 향후 한일양국이 가진 높은 역량을 보완적인 제휴관계로 발전시켜 상호 협력할 여지가 높음.

2. 글로벌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사례



- 근년에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자원확보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기업이 협력하여 제3국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희토류(稀土類)와 희소(稀少)광물자원의 개발 사업
 - 대표적 협력사례: 브라질 광산회사 주식의 공동취득(한국의 2개사와 일본의 4개사가 CBMM사 주식의 15%를 공동출자, 니오브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
 - 기타,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및 종합상사, 민간 기업에 의한 제휴사례가 증가
- ☞ 최근 3년(2008-2010년)동안 양국의 공동사업 출자액은 약 23조원(1조 7,500억엔)에 달하고 있음.

III 한일양국의 연계지원체제의 구축(案)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일연계지원체제 구축’ 최종 보고서(2011.12.29)[㈜노무라 종합연구소 서울 지점 작성]

1. 연계지원의 필요성

- 한일 양국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산업구조가 유사→제3국 자원시장에서 양국이 상호 제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조건
 - 과당경쟁을 회피하여 양국기업이 제휴하여 가격 교섭력을 강화
 - 보완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양국 기업이 가진 역량을 발휘
 -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투자 리스크의 상호분산 등을 기대



-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계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한·일협력 프로젝트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거대 투자규모, 높은 투자 및 국가 리스크 등의 핵심이슈는 민간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그림 3>참조)
 - 핵심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2. 연계지원체제 구축 방안

-한일협력의 범위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그림 4>참조](#)).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 중시
(과거: 대일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일방적 협력)
- 양국 정부간 협력에 대한 합의와 지원이 필요
(과거: 단일 정부차원에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

-제3국 자원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국정부의 공조에 의한 협력환경 개선이 필요함 ([<그림 5> 참조](#))

- 양국 정부의 지원전략과 방향성을 공유(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 한일기업간 협력모델 구축(한일공동 미션단의 파견, 협력프로젝트 개발 펀드의 구축, 현지 지원창구의 기능강화 등)

-전략적 한일협력 기반 맵(Map) 작성에 대한 상호협약을 통하여, 가칭 ‘한일산업협력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심사협의회’의 상설기구를 설치·운영 ([<그림 6> 참조](#))

- 전략 맵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과 한일기업을 대상으로 맵을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력기반 체제를 구축
- 한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가동(가칭 ‘한일산업협력위원회’ 및 ‘협력프로젝트 심사협의회’의 설치)
 - ☞한일산업협력위원회: 양국정부, 사업관련 전문가, 기업, 업계단체 등으로 구성(정보수집, 조정업무, 협력자료 등의 제공)
 - ☞협력프로젝트 심사협의회: 협력과제 및 현안의 심의·심사(‘한일산업협력위원회’의 보조 기능)

IV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위한 정부역할

1.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정부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함.

- 공존공영의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공영공존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
- 기존의 한일간 정치·경제관계를 새롭게 정립

2.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양국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 양국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지렛대로 승화
- 인적·물적 교류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공생(共生)관계를 구축
-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을 국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연계지원체제 시스템을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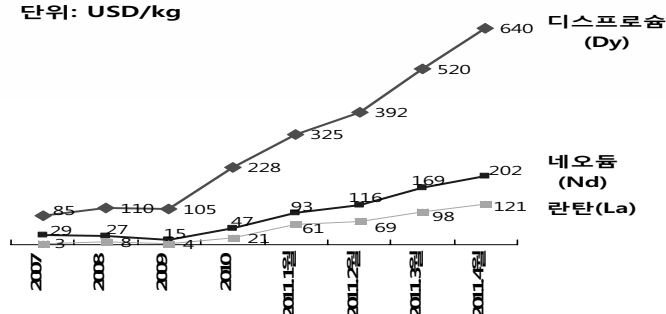
3. 중국의 급부상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공동 대응

- 한국전쟁 후 미국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던 동북아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양국국가의 생존과 존립 문제와 직결됨
- 기존의 한·일관계를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한 체제를 구축
-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함(역사적 과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1> 주요 희토류 가격 추이 및 용도

단위: USD/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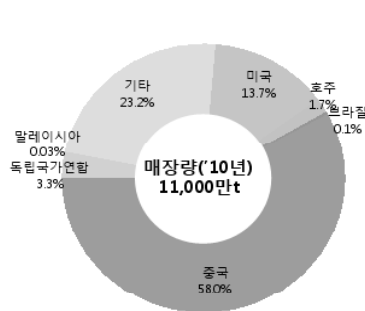


- Dy: 자석(전기자동차 모터 등), 광디스크 등
- Nd: 자석(전기자동차 모터 등), 콘덴서, 초전도재료 등
- La: 광학유리/섬유, 세라믹, 배터리, 촉매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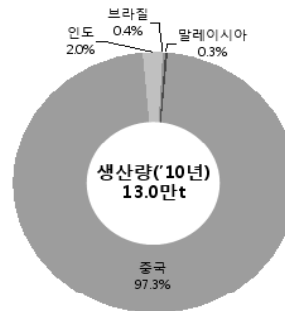
자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일연계지원체제 구축' 최종 보고서(2011.12.29)[주노무라 종합연구소 서울지점 작성]

❖ <그림 2>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

국가별 매장량 비중('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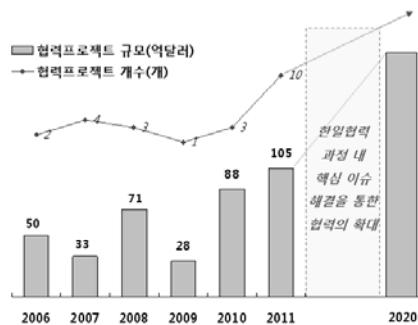
국가별 생산량 비중('10년)



자료: 전계 자료, p. 106

<그림 3> 한일협력 추이 및 전망

한일 협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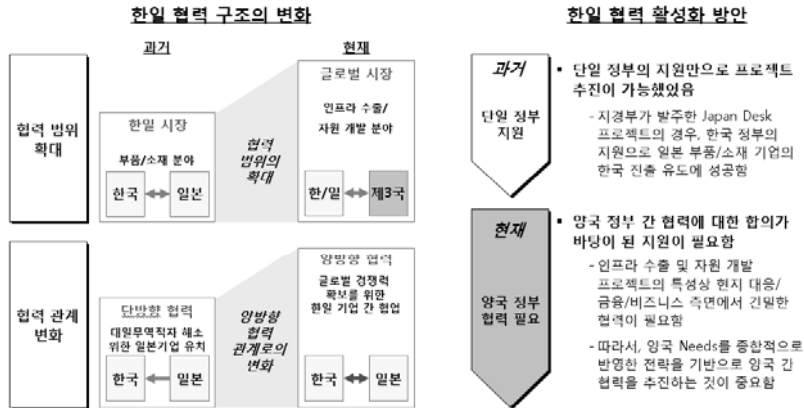
※ 타당성 조사 협력, 재입찰에 의한 컨소시엄 변동 등의 일부 프로젝트는 제외

한일 협력 전망

- | | |
|-------------|---|
| 한일협력 확대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협력프로젝트는 향후 확대 가능성 높음 - 한일 기업 간 협력 시너지 등으로, 한일협력프로젝트는 증가 추세일 - 한일협력프로젝트 규모는 전체 시장의 1% 미만으로 추정되며, 향후 협력 기회는 충분할 전망 ('11년 인프라 시장 규모 약 2조 USD) |
| 한일협력 확대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과정 내 핵심이슈 해결 필요 - 인프라/자원 분야 내 협력과정 상 다양한 어려움이 협력 확대를 제한 - 높은 투자 Risk 분담, Political Risk 대응 등 일부 핵심 이슈는 민간 차원의 대응에 한계 존재 핵심이슈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일부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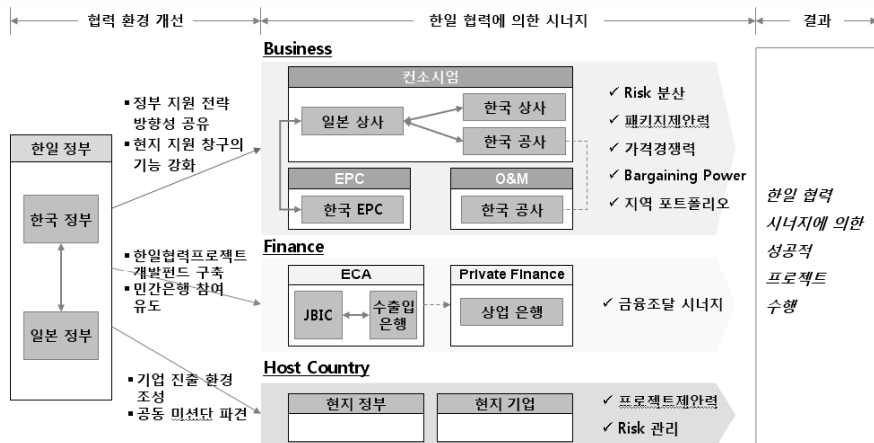
자료: 전계자료 p. 11

<그림 4> 한일협력 활성화 방안



자료: 전계 자료,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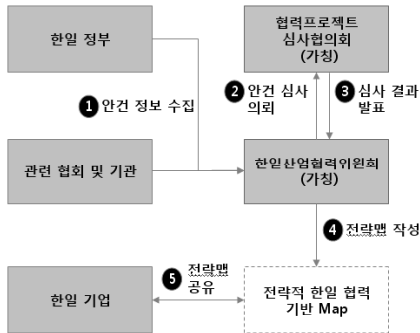
<그림 5> 한일협력모델(案)



자료: 전계 자료, p. 44

<그림 6> 전략적 한일 협력 기반 맵(Mab) 작성에 대한 상호 협약

전략적 한일 협력 기반 Map 작성 Process



주요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협력프로젝트
심사협의회
(가칭)</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한일 정부, 한일 ECA, 비즈니스 전문가(상사/공사/EPC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로 구성 ▪ [역할]
한일 협력 프로젝트 후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략맵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한일산업
협력위원회
(가칭)</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한일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 ▪ [역할]
전략적 한일 협력 기반 Map 작성 한일 기업을 대상으로 Map 공유 |

자료: 전계 자료, p. 52

第44回 韓日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12年 7月 發行

編輯兼發行人 李 鐘 允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821 서울特別市 江南區 論峴2洞 112-15番地
(韓日財團B/D 4F)

TEL : 02-3014-9888 FAX : 02-3014-9899

